**빈 생명주기 콜백**

스프링이 생성되거나 스프링이 죽기 전에 메소드를 호출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음.

생성되어 초기화될 때 호출하고, 스프링이 소멸하기 직전에 안전하게 종료할 수 있는 메소드를 호출해주고 간단한 내용임.

세 가지 방식이 있고, 각 특징 별로 배울 것이 있음.

**1. 빈 생명주기 콜백 시작**

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이나 네트워크 소켓처럼 애플리케이션 시작할 때 사전 연결을 미리하거나, 종료할 때 안전하게 종료를 해야함.

커넥션 풀 : 애플리케이션이 시작될 때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미리 맺어놓음. 그렇게 해야 tcp/핸드쉐이킹 할 때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음. 커넥션을 미리 여러 개 만들어서 요청들어오면 바로 응답할 수 있게 함.

네트워크 소켓 : 서버가 뜰 때 다른 쪽과 네트워크를 미리 열어놔야함. -> 응답을 바로 줄 수 있음.

서버가 종료될 때 기타 안전 종료를 위한 작업들을 스프링이 해준다. -> 객체의 초기화와 종료 작업이 필요하다.

네트워크는 서버가 실행될 때 미리 연결해둬야하고, 서버가 종료될 때 안전하게 끊어져야하는 네트워크 객체가 있다고 가정하자. 네트워크 연결과 종료과정을 단순히 문자열로 표현할 것.

NetworkClient

connect() : 애플리케이션 시작 시점에 호출되어 네트워크 연결을 하는 메소드

disconnect() : 애플리케이션 종료 직전에 호출되어 네트워크 연결을 끊는 메소드